

# 2018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채점위원 총평

## 공 통 문 항

본 모의논술 공통문항 답안을 채점하면서 채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시된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 후,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번 논술의 경우, 응시자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널리 알려진 익숙한 주제라고 할지라도 해당 논제는 응시자의 기대지평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답안이나 풀이과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응시자가 전제하는 기대나 선입견은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다. 이번 모의논술 답안을 통해 판단컨대, 많은 응시자들이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 주제를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 무엇보다 주어진 논제와 제시문에 충실히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2. 논제를 읽은 후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다. 이번 논술 답안의 문제점은 대체로 제시문에 대한 분석적 읽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있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상식에 기초하여 내용을 구성하거나, 제시문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한 채 출제의도와 먼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응시자들은 좀 더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읽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의 의도 파악과 더불어 제시된 지문을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이번 공통문항 논술문제는 제시문 <가>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적 성격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시대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다>에서 서술된 법관의 미래를 추론하는 과정과 입체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우선 제시문 <가>를 통해, 인공지능(AI)의 능력과 한계 및 인간과의 협업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춰 제시문 <가>를 파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시문 <가>를 통해, 제시문 <나>의 <표>를 해석하는 경우, <표>에 제시된 수치를 근거로 4차 산업시대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단순히 순서대로 서술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복잡한 문제해결능력이 어떠한 상황에서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분석 없이, 인공지능(AI)의 발전 때문에 중요하다고 평면적으로 서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나>의 <표>에 제시된 복잡한 문제해결능력부터 육체적 능력에 이르는 아홉 가지 능력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상당한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는 답안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법관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답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흔했다. 제시문 <다>를 통해 법관의 미래에 대해 서술하는 대목도 아쉬움이 있다. <가>에서 언급된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배분을 통한 공생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법관의 미래는 안정적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답안이 상당수였다.
4. 다음은 감점을 받은 구체적 이유들이다.
  - ① 단락 구성: 1000자(±100자)의 분량 전체를 통 글 형태로 작성한 답안이 꽤 있다. 논제의 흐름에 따라 <가>: 인공지능의 능력, <나>: 표의 해석, <다>: 법관의 미래에 대해서 단락을 구분하여 초점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서술한 경우가 많았다.
  - ② 문장 구성: 해당 문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비문이 흔했다. 산만하게 긴 문장으로 쓴 답안이나, 오타자로 인해 문맥의 연결이 부실한 답안도 연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어휘 구성: 논술은 제시문의 요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말로 재구성해야 한다. 답안 중에서 제시문 그대로 옮겨 적어, 자신의 주장을 담은 논술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논술에 적합하지 않은 비속어나 일상적인 구어체 표현을 구사한 경우도 흔했다.
  - ④ 글자 차원: 정자체로 분명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 2018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채점위원 총평

## 인문계열 문항

본 모의논술 인문계열 문항 답안을 채점하면서 채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훌륭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제시문을 올바르게 해석한 다음, '출제 의도'와 '제시문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2.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기본적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통해 서술자의 양육에 대한 입장을 대비한 다음 <나>의 입장을 <다>의 상황에 적용하여 <다>의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술하라는 출제 의도를 무난하게 이해해 답안을 작성하였다. 특히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 파악은 비교적 정확했다. 다만 <가>와 <나>에서 드러난 서술자의 양육에 대한 입장 차이를 대비적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며, <나>의 입장을 <다>의 경제상황에 적용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마지막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3. 제시문 <가>와 <나>에 드러난 서술자의 양육관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논술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내용을 단순 요약하는 데 그친 채, 입장 차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답안은 감점 대상이 되었다. 제시문 <가>의 서술자는 양육자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인위적 양육을 긍정하고, <나>의 서술자는 양육자의 영향을 최소화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양육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 차이를 명징하게 대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가 엇갈렸다.
4. 간혹 드물게 서술자의 입장과 양육자의 입장을 혼동해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제시문 <나>에서 양육자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 양육이 곧 서술자의 양육에 대한 입장이라고 오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의 서술자는 어린이의 자유를 제약하고 신체를 속박하는 적극적 양육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자연의 힘을 존중하는 양육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서술자와 양육자를 혼동한 답안도 있었다. 이는 출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답안에 속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감점을 받았다.
5. 주어진 지문과 논제라는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관점을 불필요하게 답안 작성에 투영한 경우도 감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제시문 <다>가 '경제'라는 삶과 직결되는 시사적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인지, 답안 작성에 자신의 경제관과 가치관을 다소 과도하게 개입시킨 답안이 적지 않았다. 또한 제시문의 맥락을 무시한 채 '정부는 대기업을 견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 관점에 기초해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논술은 답안작성자의 주관적 가치관을 묻거나 일반적 당위론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2018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채점위원 총평

## 자 연 계 열 문 항

본 모의논술 자연계열 문항 답안을 채점하면서 채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a):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에서 서술된 게임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2-1(a)는  $(1, c+2)$ 가 필승전략임을 묻는 문제이며, 제시문에서 설명한  $c=0$ 인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면 쉽게 답을 도출할 수 있다. 바꾸니  $X$ 에서 공을 꺼낼 경우와 꺼내지 않을 경우,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불필요한 경우를 생각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를 설명한 답안이 많았다.

2-1(b): 확률의 개념을 파악하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임2>의 필승전략을 찾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이 확률의 개념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체스판 전체 칸의 개수를 구함에 있어서 가로, 세로 각각의 칸의 개수가 11개이므로 전체 칸의 개수는 121개인데, 100개로 계산한 학생들이 많았다.

2-2(a): 문항에 주어진 그림으로부터 쉽게 넓이의 식을 구할 수 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A$ 라 하면,  $A = 2\pi r(2r+h)$ 이고, 부피가 1이므로  $1 = \pi r^2 h$ 이다. 따라서,

$$A = 4\pi r^2 + 2\pi r \left( \frac{1}{\pi r^2} \right) = 4\pi r^2 + \frac{2}{r}$$

이다. 많은 학생들이 미분을 이용하여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였다. 다만, 미분을 이용하여 구한 임계값에서 넓이가 최소가 됨을 정확히 설명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2-2(b): 문항 2-2(a)에서와 같이 주어진 그림을 통하여 넓이의 식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B$ 라 하면,  $B = (2\pi r + 2r)h$ 이고, 부피가 1이므로  $1 = \pi r^2 h$ 이다. 따라서,

$$B = \frac{2\pi r + 2r}{\pi r^2} = \frac{2\pi + 2}{\pi r}$$

이다. 그러나 2-2(a)에서와는 달리  $B$ 의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  $r$ 에 대한 조건  $h \geq 4r$ 이 필요하다. 이 조건과  $B$ 가  $r$ 에 대하여 감소함수임을 이용하여  $B$ 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다. 식  $B$ 를 바르게 세웠지만 조건  $h \geq 4r$ 을 생각하지 못해 틀린 답안이 많았다.

2-2(c): 직사각형의 넓이가 작을수록 더 적은 비용으로 강통을 제작할 수 있다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므로 문항 2-2(a)와 2-2(b)에서 구한 각각의 반지름을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여 비교하면 된다.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계열 문항은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교과서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여 습득된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기보다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증명이나 풀이방법을 되도록 많이 읽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